

‘나주 영상테마파크’ 어떡하나

민간위탁 관리로 사용료 부담 방송사 촬영 기피

관객도 줄어… 활성화 위해 市 직영 바람직

나주시가 140여억원을 투자한 ‘나주 영상테마파크’가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면서 방송사 드라마촬영이 줄고 관람객들의 발길마저 끊겨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등 운영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MBC 드라마 ‘주동’을 유치하면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으로 80여억원을 투자해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했다. 나주시는 공산면 신곡리 일원 14만964㎡(4만2천600여 평)에 드

라마 촬영을 계획했으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요구, 비용 부담 때문에 하루밖에 활용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철수했다.

이 과정에 나주시는 세트장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지난 2008년 8월 나주관광개발 층에 운영 관리를 맡겨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관광개발측이 위탁관리를 맡으면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방송사들이 막대한 세트장 시설 사용료 부담 때문에 ‘나주 영상테마파크’에서 활용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제작사 팀의 사전 방문에 무리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불손하게 대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례가 널리 알려져 민간 위탁 이후 드라마 촬영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경우 방송사들의 세트장

사용은 이미 나주시가 MBC와는 10년간, KBS와는 5년간 세트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발길 역시 뚝 끊겨 지난 4일에는 유료관람객이 2명, 5일 14명, 8일 22명, 9일 7명에 불과하는 등 급감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경영수익을 감안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드라마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위탁업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영광·신안 유통회사 국비지원 받는다

농림부 공모 선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정부지원 유통회사 공모에서 영광 유통주식회사와 신안 농수산물유통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공모선정에 따라 이를 유통회사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국비 20억원이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물품 확보 자금 30억원 저리융자와 대형 유통업체 납품 마케팅 활동도 지원된다.

지난해 자본금 45억원으로 설립된 영광유통주식회사는 농업인 2천여명

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굴비, 한우, 고추, 쌀 등을 주력 품목으로 산지 유통의 조직화·기업화에 나서고 있다. 신안 농수산물유통주식회사는 출자금 30억원을 바탕으로 산지 조직화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며 주력 품목은 천일염, 마늘, 시금치, 쌀, 양파 등이다.

정부는 지역 산지 유통 여건에 중점을 두고 현지 실사와 서류 심사, 사업 계획 공개 발표 등을 거쳐 성공 가능성

이 높은 곳을 정부 지원 유통회사로 뽑았다. /김자율기자 dok2000@

■ 새 얼굴

“꿈과 보람 샘솟는 나주교육 실현”

김 인숙 나주교육장



“꿈과 보람이 샘솟는 ‘New Dream 나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나주교육장 김인숙(58) 교육장은 “일선 학교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겠다”며 “바른 인성기르기와 기초·기본학력 향상, 다양한 특기와 재능계발, 나주의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남편 최동주(보성 여자중학교 교장)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철쭉 묘목 출하 손길 분주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철쭉과 자산홍 묘목을 캐고 있다. 묘목들은 1그루당 600원에 서울 묘목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구례=위지량기자 jrwi@

“우린 음주운전·부정부패 몰라요”

강진경찰서 ‘무사고 6주년’ 기념행사

강진경찰서(서장 배영철)는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협력단체 임원 및 경찰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고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전남 경찰청 산하 경찰서 통해 결과 강진경찰서 임직원은 지난 6년 동안 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진경찰은 자체 사고 방지에 방지에 기여한 이용주 경사 등 2명을 표창하고 전 직원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식 나주주민 노고를 격려했다.

배영철 서장은 “국민의 경찰로서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부정부패를 없애 청렴한 강진경찰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전남 보리·마늘·양파가 안 자란다

겨울 한파·잦은 비·일조량 부족 탓

계속된 비와 낮은 기온,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보리와 마늘, 양파 등 전남 지역 대표 월동작물의 생육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마늘의 경우 지난해보다 키가 2cm 덜 자랐고 마늘 이파리도 지난해 7.8개에서 올해는 7개로 감소했다.

양파의 키도 지난해보다 1.3cm 덜 자랐으며 이파리 수도 6.7개에서 6.5개로 줄어들어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보리도 예찰 결과 키가 예년에 비해

1.2cm 가량 작고 m당 이파리의 수도 예년보다 20여 개나 적었으며 현재 수확이 거의 끝난 대파도 3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다.

농기원은 월동작물들이 지난 겨울 많은 눈과 한파로 발육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찾은 비로 인한 습해(濕害)가 있어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지난 설 이후 강우량과 강우일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일조시간은 감소해 월동작물들의 발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

다.

실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7일 까지 전남지역 평균 강우일수는 19일로 지난해 10일보다 9일이나 많았고 평균 강우량은 163.5mm로 전년 같은 기간 71mm, 평년이 시기 109mm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일조시간은 13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26시간, 평년보다는 무려 79시간이나 늘어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비가 그치면 밭의 물 짜짐을 좋게 하고 습해를 입은 곳은 작물종류에 따라 필요한 비료를 적절히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 토지분쟁 등 민원 해결

‘지적측량기준점’ 추가 설치

화순군이 현대적인 지적(地籍) 측량 재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에 걸쳐 6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위성 측량기준점’ 625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16점을 설치 완료해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209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사업은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체계를 ‘세계 측지자’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2~3점씩 설치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적위성 측량기준점 설치가 완료되면 토지분쟁 등 민원 해결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측량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비위 연루 교직원 5명 지노위서 복직 판정

나주 고구려대학 ‘고심’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고구려 대학이 최근 복직 결정된 비위 연루 교직원의 처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일 고구려대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결과 입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당시 전임 S모총장을 비롯한 교수원 등 5명의 비위 행위가 밝혀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그러나 해임 교직원들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최근 복직 판정을 받았다.

고구려대학은 미지막 해임을 결정하기까지 이사회에서 구제책을 논의하는 등 전체 교직원들의 뜻을 수렴했으나 대부분이 개인적인 비위행위인 만큼 복직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 해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

다. 대학측은 또 해임자들이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A직원의 경우 1천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초과 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 자신의 승용차 유류비 등을 상습적으로 학교 공금으로 처리하는 등 해임된 직원들의 학교 공금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고구려대학 신윤길 법인처장은 “과거의 비리행위인 만큼 관대한 입장으로 대처했으나 지방노동위에서 이해못할 결정을 한만큼 관련 자료를 추가해 중앙노동위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 가능)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 사무실 적합)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 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산증 재산리모델링

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증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훤 011-602-23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접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접포가 4~5칸 정도에 접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근현사설

지 역 소재지 대지/건물㎡(m) 갑경기 희저가 비고

광산구 산림동 109/33 195평 7천원/㎡

서구 생활동 562/845 1193평/㎡ 79평/㎡

광산구 흥덕동 109/34 193평/㎡ 79평/